

전주시, J3 버추얼 스튜디오 건립 '첫 삽'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3번째 영상 촬영 스튜디오 조성 추진... 첨단 미래 영상 제작 기반 조성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첨단 미래 영상 제작의 기반이 될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세 번째 영상 촬영 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찔다.

전주시는 4일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사업부지(완산구 상림동 456)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영화계 관계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3 버추얼 스튜디오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4일 상림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사업부지(완산구 상림동 456)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영화계 관계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J3 버추얼 스튜디오 착공식'을 가졌다.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착공식은 △내년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J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기존 J1·J2 스튜디오에 이은 세 번째 영상 촬영 스튜디오로,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국비 122억 원 등 총사업비 249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J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2905㎡)와 특성화 세트장(958㎡) 등 연면적 3863㎡, 지상 1~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에서는 최첨단 대형 LED 월을 기반으로 영상 촬영에 필요한 배경을 화면에 실시간으로 구현해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 촬영방식과 달리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진다. 또 물리적 세트 조성이나 로케이션 촬영을 대신할 수 있어 제작비 절감 및 친환경 영상 제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성과 세트장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지만 섭외가 어려운 병원응급실 같은 장소에 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본 세트장을 제공하는 시설로, 제작진들의 로케이션 부담을 줄여 촬영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전통문화와 영화산업에 속속한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이번 세 번째 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

고, 지역 내 청년 창작자 및 제작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J3 버추얼 스튜디오는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의 거점이자, 전주가 미래형 문화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든든한 다짐이 될 것"이라며 "2026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전주가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창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장학습지이자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완산벙커' 이색 관광명소 각광

전주시, 어린이·청소년 현장학습·수학여행 코스 인기

전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이하 완산벙커)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장학습지이자 수학여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시는 최근 봄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시즌을 맞아 완산벙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 단체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관 이후 현재까지 완산벙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60여 개 교육기관이 방문했으며, 추가로 20여 개

단체 방문이 예약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완산벙커는 1973년 전시 행정 대피용 목적으로 만들어져 2006년 용도를 잃고 버려진 방공호를 시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문화관광시설로 재조성한 곳으로, 지난 2월 5일 개관 이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5000원(20인 이상 단체 2000원 할인)으로, 현재 입장권 1+1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청년,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든다' 시민대토론회

전주시, 20일까지 시민 100여명 참가자 모집

전주시가 청년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 전주지사원봉사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서 '청년,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든다'를 주제로 '제6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청년 정책을 전담할 기구 신설을 앞두고 전주시청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과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인 청년들이 머무르고, 일하고, 살아가는 젊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도움이 될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함으로써 청년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onju_city)를 통해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10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

토론회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에게는 시상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 등 '제6회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144, 501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의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운영대학 공모

전주시가 올해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대학 간 청년 인재 매칭 및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운영대학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2025년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하고, 1억 원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해 비교과 교육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대학은 대학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 수요에 맞춘 종합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우수 전문 인력이 지역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체류형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에 발맞춰 사업분야를 이공계 및 관광·콘텐츠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인재의 폭넓은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운영대학의 전주지역 대학 학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참여를 인정하고, 기관 단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8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취업 강화를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는 지난 2년간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전주비전대학교와 함께 38개 지역기업과 협력해 시스템·네트워크 실무 등 20개 특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주기업반에 참여한 이공계 학생 60명 중 총 55명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으며, 이 가운데 40명이 ICT와 전기 분야 등 협약기업으로 취업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권희성 기자

전주대 학생들, 완산구청에 라면 1000개 기부

완산구청은 4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학생들이 직접 모은 라면 1000개를 완산구청에 기부하는 전달식을 했다.

이번 기부에서 전달된 라면은 전주대학교 내 상품채플 수업의 수강생들

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배움의 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각별한 계기가 됐다.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은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실용인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삼은 전주대학교가 이처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현상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용산 완산구청장은 "이번 기부에서 참여해주신 학생들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전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기부된 물품은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16년 전주시 푸드마켓에 라면 1,000개, 2018년 완산구청, 덕진구청, 지역아동센터에 라면 5,849개 및 성금 50만원, 2019년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라면 10,194개,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함께라면사업에 성금 125만원을 기부하는 등 기부활동을 지속 이어오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